

‘맛깔난 사투리’ 이정은
‘줄지에 쌍둥이’ 김병철·조우진
‘진짜 일본인 배우 아냐?’ 김용지

“극 중 감초는 나야 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은, 김용지, 김병철, 조우진 ▶



‘미스터 션샤인’ 명품 조연들
중견 배우 노련함 돋보여
배우 간 팀워크도 한 몫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의 신작으로 스토리는 물론 PPL(간접광고) 하나까지 화제가 되는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의 또 다른 주인공은 ‘명품 조연’들이다. 주인공 5인방이 큰 줄거리를 이끌어간다면 조연들은 틈새를 채우면서 극의 강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연 중에는 중견 배우가 많아 무게감 조절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애신(김태리 분) 얘기씨의 유모 합안택으로 분한 이정은(48)은 데뷔 25년 차 연극배우답게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미 2013년부터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서브 여주인공’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보다 얘기씨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잔소리와 농담, 행랑아범(신정근)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수행비서가 아니라 밤마다 친인파를 처단하러 다니는 얘기씨를 보필하는

역할로서 코믹과 진지함을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정은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4일 “배우가 합안택 연기를 위해 실제 경남 함안 사투리 선생님을 모시고 연습도 했다. 대본 자체에 워낙 사투리가 맛깔나게 적혀있기도 하다”며 “PD뿐만 아니라 김태리, 신정근과 워낙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팀워크를 시청자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개화기가 배경인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시청자가 볼 때도 재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줄지에 쌍둥이’가 된 일식이 역 김병철(44)과 임관수 역 조우진(39) 역시 ‘미스터 션샤인’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들이다. 극 중 인물들이 끊임없이 돌의 얼굴을 헛갈리자 당사자들도 이제는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는 데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도깨비’에서도 함께한 두 사람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나만 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며 안도(?)하는 모양새이다. 조우진은 또 낙천적이고 인정 많은 역관 관수를 통해 다소 무거운 스토리 속 ‘숨통’을 트는 역할도 한다. 조우진은 소속사 유분컴퍼니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좋은 관심과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동매(유연석)의 곁을 지키는 호타루 역의 김용지(27)는 첫 드라마 데뷔부터 독특한 마스크로 시청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일본 전통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 덕분인지 “진짜 일본인 배우 아냐냐”는 말도 들었다. 타로 점성술사인 호타루 역에 맞게 말 한마디 없이도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김용지는 원래 모델 출신이다. 김용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광고, 화보,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처음 정극에 도전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약한듯 나약하지 않은 고증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이승준과 구동매의 오피셜 유조 역 유주만, 일본군 쓰다 하사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정현 등도 ‘미스터 션샤인’의 리얼리티와 극성을 살리는 주역들로 꼽힌다. 배우들의 열연 속에 드라마 역시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 지난 29일 방송한 8회에서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12.3%를 찍은 ‘미스터 션샤인’은 중반부를 향해 가면서 주인공 5인방 간 감정과 구도가 명료해졌고,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시대의 비극과 얼굴 없는 의병들의 활동상에도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졌다는 평이다. /연합뉴스

‘비블리오 배틀’
‘느낌표’ 뒤 잇나

독서 장려 ... MC 김용만
MBC 오늘 밤 첫 방영



▲ 김용만과 임하룡

다시 한번 ‘독서 북’을 일으킬 수 있을까. MBC TV가 과거 히트한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뒤를 이을 만한 또 하나의 독서 파일럿 프로그램 ‘비블리오 배틀’을 내놨다. MC 역시 ‘느낌표’에서도 함께한 개그맨 김용만이다. 그러나 형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비블리오 배틀’은 국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리더(reader)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책과 책에 얽힌 사연 등을 제한시간 5분 안에 발표하면 판정단 100명이 투표를 통해 ‘오늘의 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작진은 “책은 가벼운 웃음을 전하기도, 때로는 깊이 있는 지식을 깨치게 하기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 성인 1명의 한 달 독

서량은 고작 0.7권으로 나타났다. ‘책의 해’를 맞아 좋은 책, 나에게 맞는 책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5분간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책을 소개할 리더들은 ‘영원한 젊은 오빠’ 배우 겸 개그맨 임하룡, 영화평론가 이동진, ‘군함의 아이콘’이자 ‘이색 수집가’로 알려진 배우 최민용,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wanna-be)인 모델 송해나, 제주를 그리는 10살 동화작가 전이수가 나선다. 김용만은 리더들의 이야기에 재치를 더하고, 다양한 연령대로 모인 판정단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원조 독서 장려 전문 MC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예정이다. 6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미션 임파서블 6’ 500만 관객 돌파

‘미션’ 시리즈 중 가장 빠른 속도

톰 크루즈 주연의 첩보액션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하 미션 임파서블6)이 개봉 11일째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 루테엔터테인먼트는 4일 오후 ‘미션 임파서블6’의 누적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6’은 역대 ‘미션’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달성한 작품이 됐다. 전작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개봉 14일,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은 18일째 5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션 임파서블6’은 IMF 요원 에단 헛트(톰 크루즈 분)가 테러조직에 맞서 핵 공격을 저지한다는 내용으로, 톰 크루즈가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음 6월 25일 庚午)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